

## 2003년 인쇄·출판 근로자

### 2만7천여명 감소

#### 근로시간도 줄어

인쇄업계는 2003년 한해동안 전년보다 근로자 신규채용이 8.1% 줄어들고, 이직과 퇴직, 해고 근로자 비율이 1.0% 늘어나 전체 종사자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근로시간은 오히려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과 퇴직, 해고의 사유로 업계를 떠나는 노동자의 규모가 새로이 업계로 유입하는 노동자 규모의 두배가 넘는 가운데 나타난 1.2%의 근로시간 감소율은 2003년 인쇄업계가 겪었던 어려움을 그대로 나타낸 수치라 할 수 있다.

떠난 자와 남은 자 그리고 근로시간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2003년의 경기가 2002년과 비교 2만7525명의 근로자가 떠난 후라도 조업에 전혀 지장이 없었을 만큼 심각한 경기불황을 겪었던 것으로 추론 가능해, 2003년 인쇄업체가 겪었을 불황의 볼멘 소리가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매월노동통계 2003년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인쇄 및 관련업체에는 2만3292명이 신규로 채용된 가운데 2만6271명의 이직자와 2만4546명의 해고 및 퇴직자

등 총 5만817명이 업계를 떠난 것으로 나타나, 결국 2만7525명의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용인원의 축소는 업계에 계속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연장을 예측할 수 있으나, 2364.5 시간이던 2002년 인쇄, 출판 및 기록매체 복제업의 총 근로시간은 2003년 2336.9시간으로 오히려 27.6시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쇄기 수입이라도 늘어난 가운데 나타난 수치라면 인쇄기기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결과라 위로할 수 있지만 인쇄기 수입이 2002년과 비교해 18.2%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경기 불황의 실체를 짐작케 한다.〈표 1. 2003년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근로자 및 근로시간과 임금 변동추이 참조〉

#### 근로시간 늘어난 건 12월 뿐

월별 인원 변동과 근로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8월과 11월의 경기가 가장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8월의 경우 2002년 동 월과 비교해 신규채용이 16.4% 줄어들고, 이직

자(20.9%)와 해고, 퇴직자(42.8%)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초과근로시간 마저 16.4% 줄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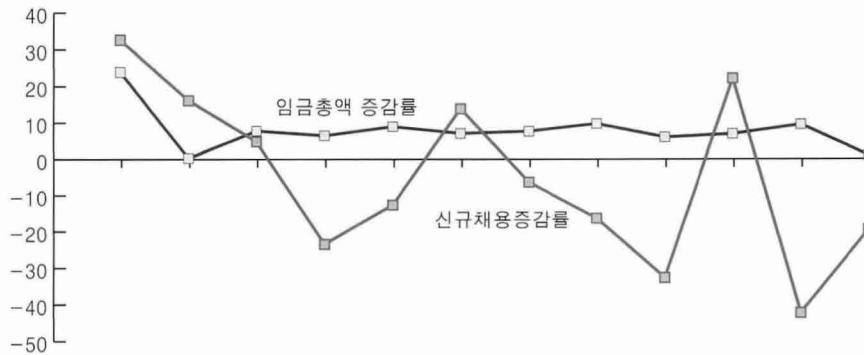
인쇄업체가 비교적 성수기 단계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는 11월도 불황의 여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신규채용은 42.3% 줄어든 반면 이직과 해고, 퇴직자의 변화 비율이 각각 9.6%, 38.8% 늘어났으며, 와중에 근로시간 마저 4.1%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2월과 6월은 2002년과 비교해 그나마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월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해 신규채용이 16.1% 늘어난 가운데, 이직이 33.7%, 해고 및 퇴직이 30.3% 줄었으며, 총 근로시간도 8.0% 늘어났다.

6월의 경우엔 신규채용이 13.8% 늘어나고, 이직자(-19.3%), 해고 및 퇴직자(-10.0%)가 줄어든 가운데 총 근로시간은 소폭이지만 0.3% 증가했다.

하지만 2월과 6월의 이 같은 변화추이는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지난해 보다 늘어난 근로일수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2월과 6월의 초과근로시간은 각각 -1.4%와 -12.3% 줄



이번 통계자료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매월노동통계 자료를 인용한 것이며, 매월 노동통계자료가 샘플 조사이기 때문에 현장의 실정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아울러 매월노동통계 자료는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관계로 인쇄업에 한정된 데이터를 끌을 수는 없다. 단, 통계청이 발표한 종사업체 통계조사에 따르면 2002년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의 월 종사자 수는 총 14만 4947명이었으며, 이중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종사자는 7만1286명, 출판업 종사자는 7만1714명이었다.

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각 항목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신규 채용의 경우 3월에 2753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업계에 유입되었는데 이 같은 수치는 2002년 동월과 비교해도 4.7% 늘어난 것이다. 2월에도 2321명의 신규채용으로 인해 2002년 같은 달 보다 16.1% 늘어났으며, 1월에는 2154명이 신규 채용된 가운데 동년 대비 가장 높은 고용 비율(32.6%)을 보였다.

반면 신규채용이 가장 적었던 월은 1496명이 채용된 9월로 2002년 동월 대비 32.7% 줄어드는 추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이직자의 비율이 동월 대비 늘어난 가운데 3월에 3329명의 인원이 인쇄업계를 떠났으며, 동년 대비 비율로 보았을 때는 1월이 27.3%로 가장 높았으며, 8월이 20.9%의 수치를 보였다. 반면 가장 적은 인원의 이직자가 발생한 월은 1574명이 이직한 2월이며, 동월 대비 비율도 33.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 및 해고 근로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3145명의 인원이 발생한 3월이었으며, 동년 대비 비율로는

38.8%를 기록한 11월로 나타났다. 성수기를 앞둔 시점에서 나타난 이 같은 이직 비율도 경기불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2월은 1357명의 인원이 퇴직 및 해고의 사유로 업계를 떠났으며, 동월 대비 비율도 30.3%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총 근로시간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12월과 10월이 205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과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었던 2월과 9월이 각각 181.5시간과 179.7시간으로 적게 나타났다.

초과 근로시간이 늘어난 월은 12월이 유일했다. 12월에는 17.1시간의 초과 근로가 있었으며, 초과 근로시간이 가장 적었던 월은 12.6시간을 기록한 9월이었다. 9월은 2002년 동월과 비교해 21.7% 비율로 줄어들었다.

한편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가운데 평균 임금은 1.1% 상승해 1인당 207만5097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업 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이 줄어든 가운데 나타난 이 같은 임금 상승은 비록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2만7525명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1인당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소규모 업체일수록 불황 심각

규모별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소규모 업체일수록 불황의 여파를 크게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10인 이하 업체의 경우 초과 근로시간이 1년을 총괄해 46.4시간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는 100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기업 한달 초과 근로시간의 62.8%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5인 이상 10인 이하 업체는 총 근로시간에서도 12월과 2월을 제외하고 전월에서 지난해와 비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10인 이하 표본 외에도 30인 이상 99인 이하, 100인 이상 299인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근로자 및 근로시간과 임금 변동 추이

시점	신규채용(증감률)	이직자수(증감률)	해고자수(증감률)	근로일수(증감률)	총근로(증감률)	초과근로(증감률)	임금총액(증감률)
2003.12	1,746 (-19.5%)	1,598 (-25.4%)	1,454 (-17.6%)	25.4 (5.4%)	205.0 (4.3%)	17.1 (1.2%)	2,667,134 (1.0%)
2003.11	1,668 (-42.3%)	2,059 (9.6%)	1,934 (38.8%)	24.5 (-3.5%)	197.4 (-4.1%)	16.5 (0.0%)	1,968,834 (9.5%)
2003.10	2,081 (22.1%)	2,101 (-4.8%)	1,982 (19.0%)	25.3 (-0.4%)	205.0 (-0.3%)	16.2 (-0.6%)	1,938,358 (6.9%)
2003.09	1,496 (-32.7%)	2,113 (-9.8%)	2,014 (-7.4%)	22.4 (-1.8%)	179.7 (-3.6%)	12.6 (-21.7%)	2,274,214 (6.0%)
2003.08	1,482 (-16.4%)	2,518 (20.9%)	2,454 (42.8%)	23.9 (-2.0%)	190.7 (-3.3%)	13.8 (-16.4%)	2,014,800 (9.7%)
2003.07	2,039 (-6.4%)	2,009 (-5.2%)	1,941 (18.1%)	25.0 (0.4%)	202.3 (-0.4%)	16.4 (-8.4%)	1,965,693 (7.6%)
2003.06	1,880 (13.8%)	1,882 (-19.3%)	1,699 (-10.0%)	23.6 (0.4%)	189.2 (0.3%)	13.6 (-12.3%)	2,197,530 (7.0%)
2003.05	1,837 (-12.7%)	2,087 (-20.4%)	1,956 (-5.2%)	24.1 (-6.2%)	193.9 (-6.7%)	15.4 (-9.4%)	1,863,359 (8.9%)
2003.04	1,835 (-23.5%)	2,531 (-9.4%)	2,369 (-3.1%)	24.6 (0.0%)	199.2 (-0.8%)	15.0 (-13.8%)	1,934,901 (6.4%)
2003.03	2,753 (4.7%)	3,329 (9.2%)	3,145 (20.5%)	24.5 (0.0%)	196.7 (-1.2%)	15.0 (-9.1%)	2,012,660 (7.7%)
2003.02	2,321 (16.1%)	1,574 (-33.7%)	1,357 (-30.3%)	22.6 (9.7%)	181.5 (8.0%)	14.4 (-1.4%)	1,927,664 (0.2%)
2003.01	2,154 (32.6%)	2,470 (27.3%)	2,241 (36.6%)	24.3 (-4.3%)	196.3 (-4.4%)	16.2 (-0.6%)	2,136,018 (23.9%)
2002.12	2,168	2,141	1,765	24.1	196.6	16.9	2,641,559
2002.11	2,891	1,879	1,393	25.4	205.8	16.5	1,797,853
2002.10	1,704	2,207	1,665	25.4	205.6	16.3	1,813,469
2002.09	2,224	2,342	2,174	22.8	186.5	16.1	2,145,667
2002.08	1,773	2,082	1,718	24.4	197.2	16.5	1,836,018
2002.07	2,178	2,119	1,643	24.9	203.1	17.9	1,826,032
2002.06	1,652	2,333	1,888	23.5	188.6	15.5	2,053,407
2002.05	2,105	2,623	2,063	25.7	207.8	17.0	1,711,344
2002.04	2,399	2,794	2,444	24.6	200.8	17.4	1,818,136
2002.03	2,630	3,048	2,609	24.5	199.0	16.5	1,869,395
2002.02	2,000	2,374	1,947	20.6	168.1	14.6	1,923,928
2002.01	1,625	1,940	1,640	25.4	205.4	16.3	1,723,540

이하 표본에서 전 월에 걸쳐 초과 근로 시간이 전년 동 월과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소율이 5인 이상 10인 이하 업체의 44.6%처럼 크지는 않았다. 반면 300인 이상 499인 이하 업체의 초과 근로시간은 전년 동 월과 비교 단 한차례도 감소하지 않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5인 이상 10인 이하 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근로시간의 단축이 눈에 띠는 가운데 성수기라 할 수 있는 12월조차 신규채용이 줄고, 이직 내지는 퇴직 및 해고의 사유로 종사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초과 근로시간 마저 전년 동 월과 대비 37.3% 줄어든 4.2시간을 기록했다.

총 근로 시간의 비율이 전년 동 월과 대비 상승한 것으로 보이나 5.8% 늘어난 근로일수를 감안하면 큰 의미를 부

여하기는 힘들어 보인다.〈표 2. 5인 이상 10인 이하 업체의 근로자 및 근로시간과 임금 변동추이 참조〉

10인 이상 29인 이하 규모에서 눈에 띠는 대목은 이직자수와 임금총액의 변동 추이이다.

10인 이상 29인 이하 규모인 이들 업체들에서는 이직자 수 감소율이 여타 규모와 비교, 상대적으로 적었다. 3월 (44.3%), 8월(10.2%) 그리고 1월 (0.3%)의 이직자수 비율이 전년 동기와 대비 늘어났을 뿐 비교적 안정적인 인력 관리를 선 보였다.

이직자 수와 함께 나타난 특이한 경우는 인쇄, 출판 및 기록매체 복제업종의 총액임금이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표본에서는 예외적으로 12월(15.2%), 2월(8.0%) 그리고 10월(7.8%)의 총액임금이 전년 동기 대

비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한편 이 표본에서는 전체 규모 중 유일하게 신규채용의 규모가 아직 내지는 퇴직 및 해고의 사유로 업계를 떠난 인원의 50%를 넘어섰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7월의 동향이다. 7월의 일반적인 동향이 신규채용이 줄고, 이직 내지는 퇴직 및 해고자가 늘어 근로일수도 줄어드는데 반해 10인 이상 29인 이하 규모에서 7월은 신규채용이 늘고(1075명), 이직이 594명으로 6월 아래 가장 적은 인원이 업계를 떠난 가운데 초과근로 시간은 18.1시간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표 3. 10인 이상 29인 이하 업체의 근로자 및 근로시간과 임금 변동추이 참조〉

30인 이상 99인 이하 표본에서는 총 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이 극히 일부

## 1규모(5인 이상 10인 이하)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근로자 및 근로시간과 임금 변동 추이

시점	신규채용(증감률)	이직자수(증감률)	해고자수(증감률)	근로일수(증감률)	총근로(증감률)	초과근로(증감률)	임금총액(증감률)
2003.12	172 (-63.5%)	300 (111.3%)	300 (180.4%)	25.4 (5.8%)	194.9 (4.1%)	4.2 (-37.3%)	1,679,324 (3.4%)
2003.11	272 (-57.4%)	264 (41.9%)	231 (24.2%)	24.4 (-3.9%)	185.9 (-3.9%)	3.5 (-7.9%)	1,502,848 (6.4%)
2003.10	377 (-2.6%)	435 (10.1%)	435 (53.7%)	25.5 (0.0%)	195.2 (-1.8%)	3.7 (-51.3%)	1,522,982 (8.3%)
2003.09	360 (-49.2%)	259 (-47.1%)	259 (-47.1%)	21.9 (-2.2%)	168.8 (-4.6%)	3.3 (-52.2%)	1,828,879 (15.2%)
2003.08	196 (-20.0%)	381 (20.2%)	381 (35.1%)	23.5 (-2.1%)	179.8 (-4.1%)	3.2 (-55.6%)	1,565,972 (7.2%)
2003.07	233 (7.4%)	268 (-38.1%)	268 (-38.1%)	24.7 (0.4 %)	188.9 (-2.3%)	4.3 (-47.6%)	1,566,509 (3.7%)
2003.06	202 (11.0%)	235 (-26.3%)	235 (-17.5%)	23.7 (1.3%)	181.1 (-0.5%)	3.7 (-46.4%)	1,538,680 (7.9%)
2003.05	292 (100.0%)	231 (-26.0%)	231 (-16.9%)	24.1 (-5.9%)	183.7 (-8.4%)	3.9 (-56.7%)	1,460,064 (7.7%)
2003.04	265 (-51.1%)	299 (5.3%)	266 (-6.3%)	24.5 (0.4%)	188.0 (-3.3%)	4.1 (-59.4%)	1,493,804 (6.1%)
2003.03	303 (-40.6%)	506 (0.4%)	472 (17.4%)	24.4 (0.8%)	186.9 (-2.6%)	4.0 (-52.9%)	1,521,466 (9.5%)
2003.02	264 (-18.5%)	165 (-52.3%)	165 (-52.3%)	22.4 (7.7%)	172.3 (6.2%)	3.5 (-36.4%)	1,496,663 (7.5%)
2003.01	486 (155.8%)	348 (42.0%)	348 (42.0%)	24.5 (-3.2%)	188.6 (-5.7%)	5.0 (-32.4%)	1,649,458 (22.1%)

## 2규모(10~29인)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근로자 및 근로시간과 임금 변동 추이

시점	신규채용(증감률)	이직자수(증감률)	해고자수(증감률)	근로일수(증감률)	총근로(증감률)	초과근로(증감률)	임금총액(증감률)
2003.12	588 (-13.9%)	655 (-23.7%)	634 (-26.2%)	26.0 (5.7%)	207.5 (4.2%)	15.4 (8.5%)	1,951,966 (-15.2%)
2003.11	585 (-48.9%)	787 (-12.7%)	766 (24.4%)	25.3 (-1.9%)	202.9 (-2.5%)	16.3 (22.6%)	1,647,213 (7.0%)
2003.10	1,069 (92.3%)	728 (-11.8%)	728 (12.7%)	25.4 (1.6%)	210.1 (4.2%)	16.7 (21.9%)	1,610,635 (2.9%)
2003.09	356 (-52.7%)	604 (-2.4%)	582 (1.7%)	22.6 (-2.6%)	177.1 (-6.3%)	7.2 (-53.8%)	1,810,442 (-7.8%)
2003.08	565 (-16.2%)	766 (10.2%)	766 (31.6%)	23.5 (-4.9%)	186.4 (-4.8%)	10.9 (-19.3%)	1,759,680 (9.0%)
2003.07	1,075 (5.5%)	594 (-31.0%)	574 (0.2%)	25.0 (-1.2%)	204.5 (0.2%)	18.1 (26.6%)	1,735,313 (5.6%)
2003.06	710 (23.1%)	547 (-38.2%)	468 (-45.8%)	23.4 (-1.7%)	184.6 (-1.1%)	8.8 (-19.3%)	1,652,362 (4.7%)
2003.05	738 (-22.9%)	843 (-22.6%)	798 (-12.5%)	24.3 (-6.2%)	192.5 (-6.8%)	10.3 (-10.4%)	1,585,485 (5.7%)
2003.04	595 (-29.1%)	984 (-9.6%)	984 (5.5%)	24.9 (-0.0%)	199.5 (-0.2%)	11.7 (-0.0%)	1,606,268 (7.3%)
2003.03	1,174 (21.3%)	1,211 (4.0%)	1,191 (6.2%)	24.8 (-0.4%)	197.6 (-1.4%)	12.0 (-7.7%)	1,625,092 (6.9%)
2003.02	971 (28.8%)	641 (-44.3%)	555 (-43.1%)	22.5 (9.2%)	181.5 (8.9%)	11.6 (11.5%)	1,547,624 (-8.0%)
2003.01	661 (9.1%)	764 (0.3%)	702 (4.3%)	24.5 (-4.7%)	196.8 (-3.6%)	11.4 (3.6)	1,874,411 (24.4%)

## 3규모(30~99인)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근로자 및 근로시간과 임금 변동 추이

시점	신규채용(증감률)	이직자수(증감률)	해고자수(증감률)	근로일수(증감률)	총근로(증감률)	초과근로(증감률)	임금총액(증감률)
2003.12	628 (68.8%)	244 (-58.1%)	154 (-65.5%)	25.1 (3.7%)	208.8 (3.1%)	21.8 (-2.2%)	2,304,359 (-7.8%)
2003.11	319 (-38.4%)	458 (40.5%)	427 (84.1%)	24.5 (-3.9%)	204.0 (-4.0%)	21.6 (-2.7%)	1,922,031 (10.3%)
2003.10	274 (-0.4%)	408 (0.0%)	357 (13.7%)	25.4 (-0.8%)	210.8 (-1.2%)	20.8 (-1.0%)	1,841,291 (7.1%)
2003.09	264 (-32.5%)	661 (-4.5%)	602 (-7.0%)	22.7 (0.4%)	187.0 (-1.2%)	18.1 (-6.2%)	2,012,527 (5.1%)
2003.08	391 (-33.6%)	736 (86.8%)	700 (95.5%)	24.7 (-0.4%)	200.8 (-2.7%)	18.0 (-17.1%)	1,924,257 (14.8%)
2003.07	299 (-45.2%)	541 (54.6%)	541 (119.9%)	25.1 (0.0%)	206.9 (-2.7%)	18.6 (-29.0%)	1,908,624 (4.6%)
2003.06	511 (33.4%)	601 (14.3%)	519 (61.2%)	23.4 (-0.8%)	191.2 (-2.2%)	15.7 (-28.0%)	1,856,645 (-1.5%)
2003.05	417 (-29.8%)	431 (-18.1%)	359 (5.6%)	24.4 (-6.2%)	205.8 (-4.4%)	23.5 (-2.9%)	1,804,498 (4.8%)
2003.04	466 (-9.0%)	610 (6.1%)	586 (25.5%)	24.6 (0.0%)	206.2 (-0.6%)	21.4 (-13.7%)	1,816,804 (1.3%)
2003.03	512 (-18.7%)	516 (-32.3%)	504 (-20.9%)	24.6 (0.4%)	203.9 (-0.1%)	21.4 (0.9%)	1,897,066 (5.3%)
2003.02	548 (37.0%)	259 (-25.1%)	184 (-33.1%)	22.1 (7.3%)	184.8 (6.6%)	19.8 (5.3%)	1,722,423 (-2.6%)
2003.01	588 (32.1%)	583 (23.0%)	518 (57.4%)	24.3 (-4.0%)	202.2 (-4.4%)	21.9 (-4.4%)	1,974,926 (18.2%)

4규모(100~299인)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근로자 및 근로시간과 임금 변동 추이

시점	신규채용(증감률)	이직자수(증감률)	해고자수(증감률)	근로일수(증감률)	총근로(증감률)	초과근로(증감률)	임금총액(증감률)
2003.12	250 (-38.9%)	246 (-20.4%)	242 (19.2%)	25.4 (4.5%)	213.6 (1.9%)	26.5 (-17.2%)	2,728,450 (9.4%)
2003.11	365 (-12.5%)	434 (60.1%)	421 (90.5%)	24.6 (-4.7%)	207.5 (-5.6%)	26.8 (-14.6%)	2,140,365 (12.8%)
2003.10	247 (-33.6%)	326 (-10.9%)	298 (25.7%)	25.3 (-2.7%)	212.7 (-3.2%)	25.9 (-15.1%)	2,118,319 (11.2%)
2003.09	426 (73.9%)	399 (33.9%)	395 (64.6%)	22.5 (-3.8%)	189.9 (-6.1%)	23.9 (-18.4%)	2,187,547 (11.7%)
2003.08	252 (76.2%)	426 (-4.3%)	406 (9.1%)	24.2 (-2.0%)	202.5 (-2.9%)	25.5 (-12.4%)	2,225,825 (16.7%)
2003.07	286 (13.5%)	376 (18.2%)	338 (23.8%)	25.3 (-0.4%)	212.7 (-1.3%)	26.3 (-9.0%)	2,157,576 (19.3%)
2003.06	344 (1.8%)	374 (5.9%)	362 (50.2%)	24.4 (1.2%)	204.4 (0.0%)	26.8 (-3.9%)	2,126,584 (11.4%)
2003.05	292 (31.5%)	383 (-14.1%)	375 (26.7%)	24.6 (-5.0%)	204.9 (-7.3%)	26.5 (-15.3%)	2,018,970 (17.3%)
2003.04	393 (17.0%)	446 (-18.2%)	370 (-22.3%)	25.2 (1.2%)	210.9 (-1.7%)	26.5 (-16.4%)	2,144,763 (14.3%)
2003.03	517 (40.5%)	360 (7.5%)	325 (19.9%)	24.4 (-2.0%)	203.4 (-4.4%)	26.0 (-14.2%)	1,971,166 (17.2%)
2003.02	389 (43.0%)	323 (33.5%)	276 (52.5%)	22.7 (7.1%)	193.3 (5.6%)	25.8 (-6.2%)	2,194,185 (17.0%)
2003.01	212 (-7.4%)	462 (58.8%)	414 (71.8%)	24.4 (-5.8%)	206.2 (-7.0%)	28.5 (-9.2%)	2,110,592 (15.1%)

5규모(300~499인)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근로자 및 근로시간과 임금 변동 추이

시점	신규채용(증감률)	이직자수(증감률)	해고자수(증감률)	근로일수(증감률)	총근로(증감률)	초과근로(증감률)	임금총액(증감률)
2003.12	24 (-72.4%)	61 (-66.7%)	34 (-61.4%)	25.6 (5.8%)	206.6 (7.4%)	20.2 (29.5%)	3,316,821 (7.8%)
2003.11	40 (-68.3%)	51 (-61.9%)	27 (-64.9%)	24.6 (-2.4%)	193.2 (-3.2%)	16.3 (7.9%)	2,449,201 (10.9%)
2003.10	29 (-63.8%)	90 (-37.1%)	54 (-55.0%)	25.1 (-1.6%)	198.3 (1.4%)	15.2 (130.3%)	2,562,985 (3.0%)
2003.09	45 (-26.2%)	71 (-49.3%)	58 (-53.6%)	22.1 (-0.5%)	176.0 (2.6%)	13.3 (70.5%)	2,482,413 (3.6%)
2003.08	34 (-49.3%)	91 (-37.2%)	83 (76.6%)	24.0 (0.8%)	189.5 (2.3%)	14.5 (74.7%)	2,614,272 (8.0%)
2003.07	75 (-12.8%)	99 (17.9%)	90 (80.0%)	24.9 (4.2%)	196.6 (4.7%)	14.6 (44.6%)	2,365,678 (12.4%)
2003.06	40 (-70.8%)	35 (-78.9%)	25 (-73.4%)	23.7 (5.8%)	190.2 (10.1%)	17.2 (123.4%)	3,068,729 (18.8%)
2003.05	41 (-51.8%)	75 (-51.9%)	69 (-51.7%)	23.7 (-8.8%)	188.9 (-5.2%)	12.6 (61.5%)	2,275,332 (10.6%)
2003.04	40 (-71.6%)	69 (-40.0%)	40 (-59.6%)	23.3 (-5.3%)	188.1 (-1.6%)	12.2 (40.2%)	2,529,933 (4.1%)
2003.03	83 (-24.5%)	601 (243.4%)	521 (485.4%)	25.5 (4.1%)	200.0 (5.5%)	14.5 (66.7%)	2,211,534 (-1.3%)
2003.02	79 (-40.6%)	72 (-68.8%)	63 (-50.0%)	22.4 (8.7%)	180.0 (11.4%)	14.1 (51.6%)	2,637,769 (6.6%)
2003.01	82 (-12.8%)	145 (40.8%)	135 (48.4%)	24.2 (-5.8%)	195.2 (-0.1%)	17.2 (102.4%)	2,515,915 (20.6%)

6규모(500인이상)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근로자 및 근로시간과 임금 변동 추이

시점	신규채용(증감률)	이직자수(증감률)	해고자수(증감률)	근로일수(증감률)	총근로(증감률)	초과근로(증감률)	임금총액(증감률)
2003.12	84 (-42.5%)	92 (41.5%)	90 (45.2%)	24.6 (7.4%)	192.7 (8.4%)	13.0 (73.3%)	5,776,781 (11.5%)
2003.11	87 (85.1%)	65 (6.6%)	62 (1.6%)	23.0 (-3.8%)	175.9 (-7.3%)	9.1 (-19.5%)	2,871,600 (7.9%)
2003.10	85 (150.0%)	114 (62.9%)	110 (69.2%)	24.4 (-2.4%)	188.5 (-4.0%)	9.2 (-22.0%)	2,790,204 (7.3%)
2003.09	45 (-31.8%)	119 (15.5%)	118 (18.0%)	21.9 (-2.2%)	172.3 (-2.2%)	8.6 (-21.8%)	4,375,868 (12.1%)
2003.08	44 (-20.0%)	118 (37.2%)	118 (53.2%)	23.0 (-2.5%)	177.8 (-5.8%)	8.3 (-38.1%)	2,706,603 (0.1%)
2003.07	71 (22.4%)	131 (79.5%)	130 (91.2%)	24.5 (3.8%)	194.3 (3.0%)	10.4 (-21.2%)	2,599,303 (2.2%)
2003.06	73 (108.6%)	90 (7.1%)	90 (8.4%)	23.1 (4.1%)	181.7 (3.1%)	10.8 (-20.6%)	4,527,147 (7.4%)
2003.05	57 (-43.6%)	124 (31.9%)	124 (31.9%)	22.4 (-8.2%)	173.4 (-10.3%)	9.8 (-25.8%)	2,637,268 (7.1%)
2003.04	76 (162.1%)	123 (-33.9%)	123 (-33.5%)	23.8 (1.3%)	187.5 (0.8%)	8.1 (-30.2%)	2,803,572 (2.9%)
2003.03	164 (272.7%)	135 (25.0%)	132 (48.3%)	23.2 (-2.5%)	182.4 (0.2%)	7.6 (-33.3%)	3,651,775 (4.1%)
2003.02	70 (-40.2%)	114 (96.6%)	114 (159.1%)	23.8 (20.8%)	170.8 (11.9%)	7.8 (-44.7%)	2,889,558 (-10.8%)
2003.01	125 (104.9%)	168 (158.5%)	124 (103.3%)	23.4 (-2.1%)	180.4 (-3.6%)	10.8 (-9.2%)	3,449,942 (39.9%)



를 제외하고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총 근로시간의 경우 12월(3.1%)과 2월(7.3%)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했으며, 초과근로 시간의 경우 2월(5.3%)과 3월(0.9%)을 제외한 전월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표본에서 경기가 좋았던 월은 12월과 1월을 꼽을 수 있는데, 12월의 경우 신규채용이 628명으로 1년 중 가장 많았고, 이직자 수(244명)와 퇴직 및 해고자 수(154명)가 역시 가장 적은 가운데 초과 근로시간은 동기 대비 소폭(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월도 신규채용이 548명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는 가운데, 이직(259명) 내지는 해고 및 퇴직(184명) 역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초과 근로시간 또한 전년 동기 대비 5.3% 상승했다.

100인 이상 299인 이하 표본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해고 및 퇴직자 수와 초과근로시간이다.

퇴직 및 해고의 사유로 4222명이 업계를 떠난 가운데 4월(22.3%)을 제외하고 모든 월에서 전년 동기 상승을 면치 못했다.

총 근로 시간이 전체 규모 중 2462시간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전 월의 초과 근로시간이 전년 동기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초과 근로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전체적으로 줄어든 비율에도 불구하고 100인 이상 299인 이하 규모의 초과근로시간은 315시간으로 전체 규모 중 가장 많았다.

이 표본 단위에서 또 하나 특이 사항은 8월의 추이이다. 일반적인 8월의 추이는 신규채용이 줄어들고 이직 내지는 해고 및 퇴직자가 늘어나며, 초과근로 시간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 표본 단위에서는 전체 규모 중 유일하게 8월의 신규채용이 전년 동기 대비 유일하게 늘어난 가운데, 이직자 수 역시 전년 동기와 대비해 줄어들었다.

300인 이상 499인 이하 표본에서는 초과근로시간의 동기 대비 변화 폭이 눈여겨 볼만하다. 100인 이상 299인 이하 표본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초과근로시간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하락했으나, 300인 이상 499인 표본은 전년 동기대비 초과근로시간 비율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변화 폭도 커서 10월 130.3%, 6월 123.4% 그리고 1월엔 102.4%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표본 단위에서는 신규 채용 및 이직 내지는 해고 및 퇴직 등 종사자 수에 변화를 미치는 수치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직 내지는 해고 및 퇴직자 수 대비 신규채용 비율이 23.0%로 전체 규모 중 가장 적었

다. 500인 이상 표본에서 전년 동기 대비 이직 내지는 해고 및 퇴직자수 비율이 4월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한 가운데 12월을 제외한 전 월에서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

300인 이상 499인 이하 표본과 마찬가지로 인원 변동 수가 그리 크지 않은 안정적인 인력 구조를 보인 가운데,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을 채 넘기지 못했다.

#### 경기 좋아지면 인력난 불 보듯

경기불황의 심각성 외에도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나타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인쇄업의 인력난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싶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1998년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칠 때도 그랬지만 2003년 한 해 동안 5만817명의 근로자가 이직 내지는 해고 및 퇴직의 사유로 업계를 떠난 가운데 2만3292명의 근로자가 신규에 진입해 무려 2만7525명의 결손이 발생했다.

즉각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불황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MBA 최고과정을 나오지 않은 경영자라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당장의 미봉책보다는 프랑스나 서구 유럽의 경우처럼 일자리를 나누어 갖는 구조조정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필요 한 시점이다.

(이용우기자)